

2019.6월 제8호

BLOCKCHAIN 동향과 이슈



CONTENTS

이슈 리포트

OPINION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회원사 동향



BLOCKCHAIN 동향과 이슈

2019.6월 제8호

CONTENTS

| | |
|---------------------|----|
| 이슈 리포트 | 2 |
| OPINION | 11 |
|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 24 |
|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 35 |
| 회원사 동향 | 68 |

※ 「BLOCKCHAIN 동향과 이슈」는 본 협회 협력사인 '코인니스[Coinness]'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슈 리포트

■ 암호화폐 불마켓 진입 7가지 근거

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불마켓 진입 7가지 근거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가 암호화폐 시장이 불마켓(bull market)에 진입하고 있다며, 아래 7가지 원인을 근거로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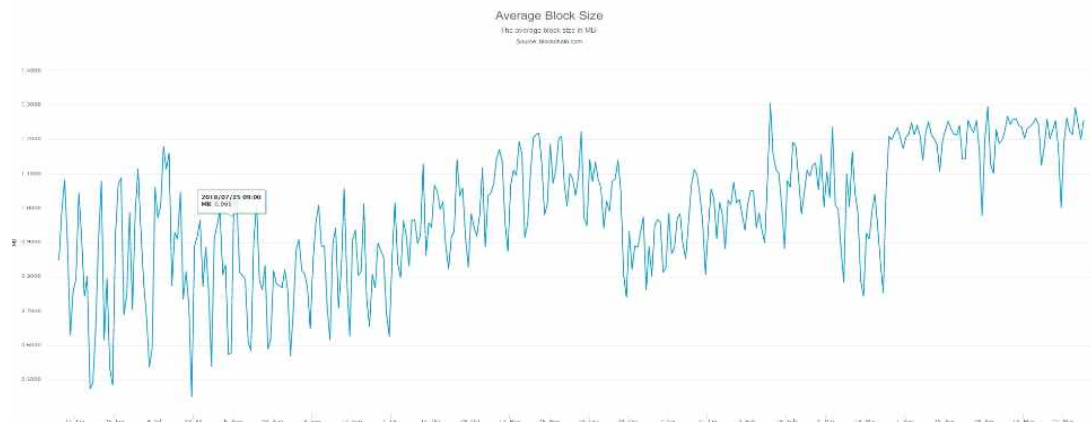
1. 비트코인 펀더멘털 개선, 최고치 근접

비트코인(Bitcoin, BTC) 이용 규모가 지난 16개월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동시에 BTC 해시 파워가 2018년 말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 5월 29일 기준 57.99 EH/s를 기록했다. BTC 해시파워는 2018년 8월 27일 사상 최고치인 61.86 EH/s에 근접하고 있다.



출처: 블록체인닷컴

BTC 평균 블록 사이즈 역시 지난해 말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3월 26일을 기점으로 1MB를 상회한 1.26MB를 기록하고 있다.



출처: 블록체인닷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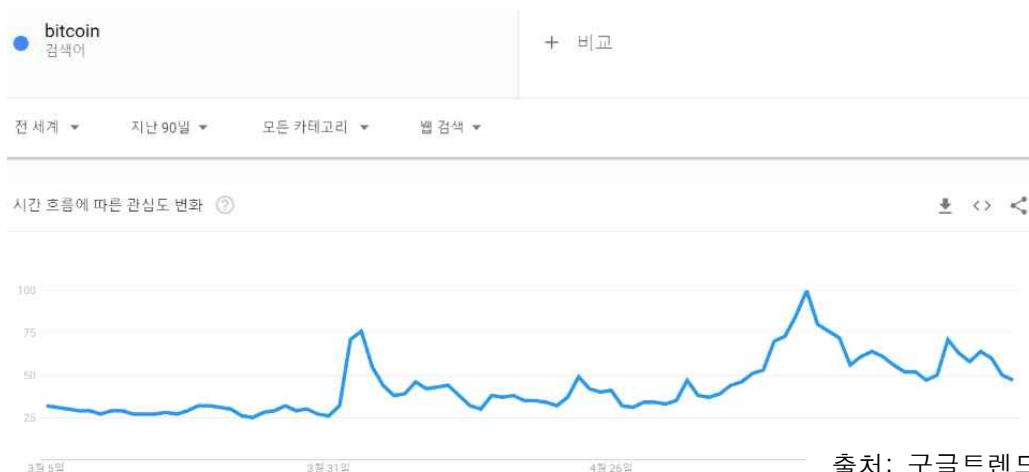
또한 비티씨닷컴에 따르면 2019년 5월 31일 BTC 채굴 난이도 7.46T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난이도로, 이전 BTC 역대 최고 난이도는 2018년 10월 4일 기록한 7.45T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출처: 비티씨닷컴

2. 구글트렌드 ‘Bitcoin’ 검색량 지속 증가, BTC 1만 달러 기록 시 FOMO 올 것

‘Bitcoin’의 구글 트렌드 검색량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소강상태를 보이던 BTC 구글트렌드 수치가 이번 달 BTC 가격 급등과 함께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출처: 구글트렌드

이슈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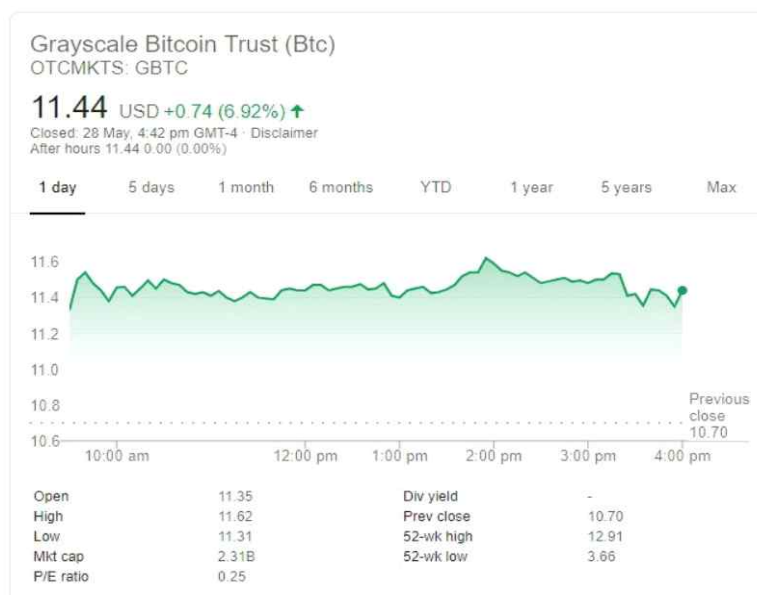
비트코인 검색량이 FOMO(Fear of missing out,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효과를 나타낼 정도는 아니지만, 다수 전문가는 BTC 가격이 1만 달러를 돌파할 때 FOMO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미국 월스트리트 소재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스트랫의 창업자 겸 애널리스트 톰 리(Tom Lee)는 “진정한 FOMO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은 BTC가 1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라고 주장했다.

펀드스트랫은 최근의 BTC 흐름에 대해 6,950달러 부근이 FOMO 초기 단계, 8,340달러는 FOMO 중간 단계였다고 설명했다.

3.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불마켓 준비

최근 비트코인 애널리스트 리듬(Rhythmtrader, 필명)이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2019년 4월 미국 소재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투자신탁 GBTC가 1만 1,236 BTC를 매집했다. 이는 매달 약 5만 4,000 BTC가 채굴되는 신규 BTC의 약 21%를 차지하는 수치”라며 “2020년 5월 22일 이후에는 42%를 차지하는 수치”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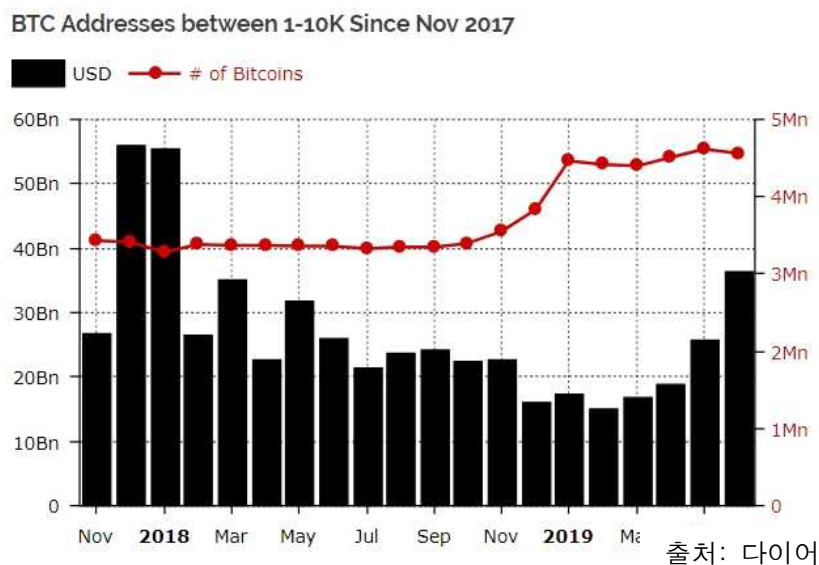
출처: 조셉 영 트위터

같은 날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영(Joseph Young)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그레이스케일 GBTC의 최근 비트코인 거래 가격은 1만 1,000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GBTC 운용자산규모(AUM)는 이번주 이미 12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거래소 대비 프리미엄은 37%에 달했다. 이는 적격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4. 고래(Bitcoin Whales) 주소 7% 포인트 증가, 전체 BTC 유통량 25%

※ 고래(Bitcoin Whales) :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력, 대규모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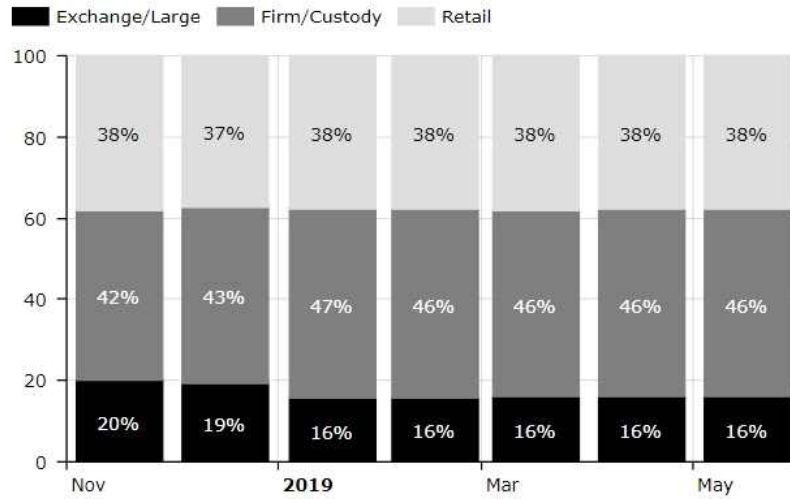
암호화폐 전문 분석 기관 다이어에 따르면, 2018년 5월 28일~2019년 5월 28일 동안 1,000~10,000 BTC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 주소가 약 7%포인트 증가했으며, 2019년 5월 26일 BTC 유통량 중 26%가 넘는 364억 달러 규모가 해당 주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TC 주소 분포는 기관투자자 주소가 2018년 말부터 증가하며 5월 26일 평균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슈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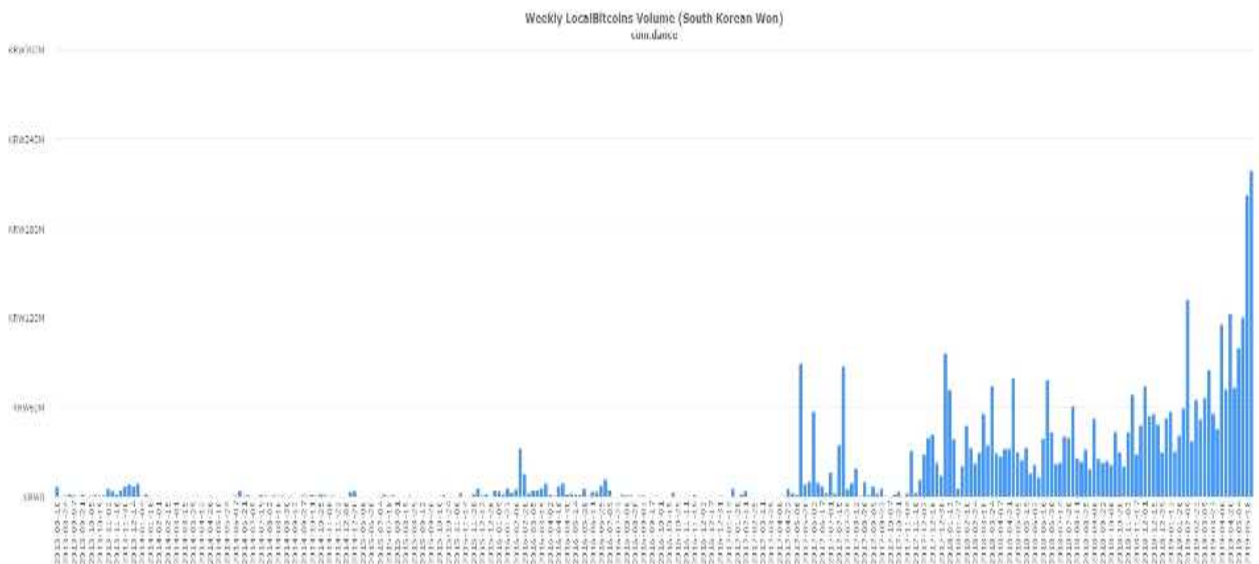
Bitcoin Address Holding Distribution



출처: 다이어

5. OTC 거래량 사상 최고..한국 BTC OTC 거래량 2억 1,800만 원 최고치 경신

기관 거래량이 2019년 들어 매달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장외거래(OTC) 플랫폼 로컬비트코인즈의 한국 비트코인 거래량이 2억 1,800만 원 이상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출처: 코인댄스

6. BTC 사용 기관 증가, BTC 대중화 증가세

글로벌 기업, IT 공룡들이 기존 상품에 BTC를 도입하는 추세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의 탈중앙화 신분식별 오픈 소스 프로토콜인 아이온(ION)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서비스 간의 탈중앙화 개인정보 데이터 공유를 위한 프라이빗 키 (Private key) 소유 증명 및 식별을 제공한다.

요크 로데스(Yorke Rhodes) 마이크로소프트 블록체인 개발팀의 프로젝트 책임자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년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퍼블릭 체인에서의 신분 시그니처 및 검증 솔루션 구현을 연구해 왔다.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현재 많은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프로토콜이 해당 제품들과의 통합을 통해 다양한 탈중앙화 기반 신원 데이터 식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디어는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를 인용해 “아이온이 연말쯤 테스트넷에서 비트코인 메인넷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포브스에 따르면, 윈클보스 형제(Winklevoss twins)가 최근 스타벅스 매장에서 제미니달러(GUSD) 결제로 커피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제에 암호화폐 결제 스타트업 플렉사(Flexa)가 개발한 스페든(Spedn) 앱이 사용됐으며, 앱은 BTC·ETH·LTC·BCH·GUSD 결제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실상 세계 최대 카페 체인 스타벅스가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 측은 제미니 또는 플렉사와의 협력 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이나, 일부 미디어에서는 “스타벅스가 제미니의 경쟁사인 백트(Bakkt)와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포브스는 스페든이 베타 서비스를 통해 스타벅스 외에도 아마존 산하 홀푸드마켓(Whole Foods

Market), 반스앤노블(Barnes & Noble), 베스킨라빈스(Baskin Robbins), 베드 배스 앤 비욘드(Bed Bath & Beyond), 카리부 커피(Caribou Coffee) 등 다수 기업에 대해서도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약 100여 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 이베이, 페이스북 등 IT 공룡들이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7. 최근 BTC 가격 상승세

최근 다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가 BTC 상승장을 전망하며 최고 상승 폭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국 싱크마켓츠(Think Markets U.K.)의 수석 애널리스트 나옴 아슬람(Naeem Aslam)이 “BTC가 1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최근 BTC 상승세와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봤을 때 앞으로 며칠간 이어지는 BTC 추세가 관건”이라며 “만약 1만 달러를 돌파한다면, 이는 지난 2017년 12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인 2만 달러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이토로(eToro)의 선임 마켓 애널리스트인 마티 그린스팬(Mati Greenspan)이 최근 BTC의 급등 후 갑작스런 조정에 대해 “BTC가 향후 일정 기간 여러 번의 포물선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현재 시장은 새로운 상승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19년 5월 17일 BTC의 하락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사실 예상보다 다양한 산업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다. 향후 블록체인이 사회 전반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라고 진단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테디 클랩스(Teddy Cleps)가 “BTC가 11,700달러를 돌파해야 비로소 진짜 상승장이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11,700달러가 붕괴했을 때 약세장에 돌입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BTC는 지난 2018년 초 11,700달러 선을 3차례 터치한 바 있다. 이는 해당 시세 돌파 여부가 강·약세장을 가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OPINION

- 이미 온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대한민국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 권호천 Global ICT Lab 소장

한국블록체인협회

이미 온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대한민국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글_ 권호천 Global ICT Lab 소장



출처: Pixabay

‘혁명’과 ‘혁신’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세계관이 변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 그리고 사회의 주체인 인간의 사고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지구에서 수렵과 채집 생활을 시작하던 1만 년 전부터 지금의 정보화 사회까지 ‘혁명’과 ‘혁신’은 늘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 거처를 옮기며 생활하던 원시 인간이 비로소 일정한 주거형태와 생산형태를 가지며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끈 것은 ‘농업혁명’이라는 혁신적 시스템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인간과 가축의 협업을 통한 생산과 운송의 혁신은 식량 생산량과 인구의 증가 그리고 도시화를 촉진했으며, 국가를 구조적으로 구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농업기반의 사회는 18세기 중반 증기기관과 철도를 기반으로 하는 1차 산업혁명을 통해 생산과 운반의 기계화 혁신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후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전기의 발명으로 촉발된 2차 산업혁명은 테일러리즘으로 대변되는 작업의 분업화 즉, 생산과 조립라인의 혁신을 통한 대량생산 시스템은 ‘굴뚝산업과 도시 노동자’를 탄생시켰다.

1960년대 등장한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Mainframe Computing)과 1970~1980년대 등장한 PC(Personal Computing), 1990년대 중반 등장한 인터넷(Internet)과 웹 브라우저(Web Browser), 그리고 2007년 등장한 스마트폰은 3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을 견인하며 사회와 경제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년 초, 스위스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포럼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은 “전 세계 사회·산업·문화적 르네상스를 불러올 과학기술의 대전환기가 시작됐다”라고 선언하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세계에 던졌다. 이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체제와 사회 구조 그리고 인간의 소비와 생활방식 그리고 산업에서의 생산 활동 형태의 혁신적 변화가 곧 우리에게 도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출처: 신화망

4차 산업혁명에는 ‘초연결’ (Hyper-connected) 사회라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이전의 산업혁명들과는 다르게 광범위하고 융합적인 분야와 방법으로 산업과 인간 생활에 빠른 속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며,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개인과 사회에 변화를 추동할 것인지에 대해 개괄적이라도 알고 있는 개인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개괄적인 내용을 공유하여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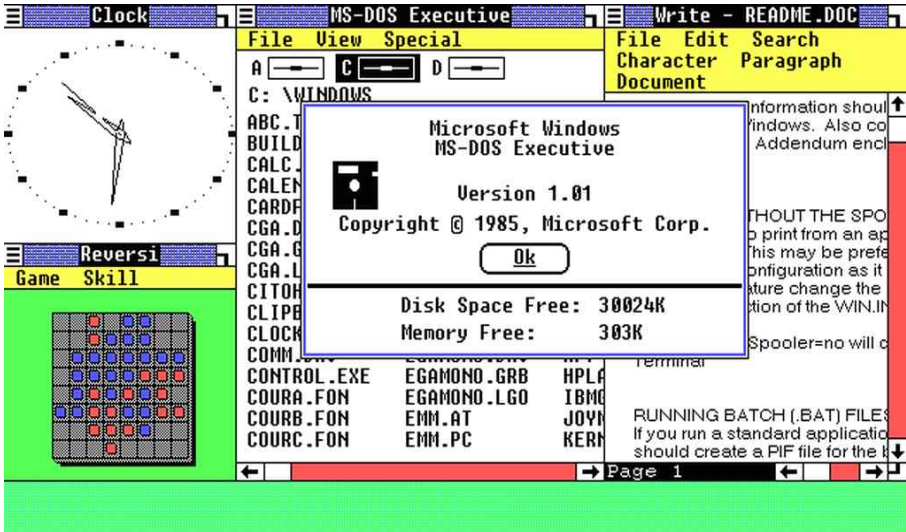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진행되었던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대국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과 인간의 대결은 알파고가 4승 1패를 기록하며 이세돌 9단에게 승리했다. 이 이벤트는 일반에게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관심의 유효기간을 그리 길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이러한 기술들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1943년 전자식 숫자 적분과 계산을 위한 최초의 컴퓨터 애니악이 발명된 이후 컴퓨터는 진화를 거듭하며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1963년 더글라스 앵겔바트(Douglas Engelbart)와 빌 잉글리시(Bill English)가 마우스를 개발한 이후 제록스 알토 컴퓨터 시스템(Xerox Alto Computer System)의 후신인 제록스 스타(Xerox Star)의 기본 부품이 되었으며, 이것이 상업용 시장에 출시된 최초의 마우스가 되었다.

최초 출시 당시 시스템의 가격은 75,000달러로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용 컴퓨터의 필수품이 된 것은 1983년 애플(Apple)이 1만 달러에 출시한 애플 리사(Apple Lisa)부터였다. 또한 더글라스 앵겔바트(Douglas Engelbart)는 제록스 파크(Xerox PARC) 연구소에서 온라인 시스템의 창, 메뉴, 아이콘, 폴더를 통합한 가상 데스크톱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최초로 구현하였다.

제록스 파크(Xerox PARC) 연구소를 방문한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이때 GUI를 처음 목격한 후 영감을 얻어 1983년 GUI와 마우스가 있는 세계 최초의 PC인 리사(Lisa)를 개발하여 출시하게 된다. 같은 해 10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빌 게이츠(Bill Gates)도 윈도우1.0을 출시하며 PC 시장의 본격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후 인터넷(Internet)과 최초의 브라우저 모자이크(Mosaic)가 출현하며 오늘날의 웹의 역사가 태동하게 되었다.





출처: IT동아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개발은 후속적인 연관기술들의 개발과 상용화로 이어지며 혁명의 변화를 이끌었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마우스와 GUI가 없었다면 PC와 하이퍼링크(Hyperlink)도 없었을 것이며, 하이퍼링크가 없었다면 웹도 없었을 것이고, 웹이 없었다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도 없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정보화 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이라는 3차 산업혁명도 없었을 것이다.

인류에게 다가와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낸 앞선 산업혁명 기술들과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4차 산업혁명은 상당히 밀접하게 상호연관성을 바탕으로 연결되어 있다. 3차 산업혁명을 견인한 컴퓨터, 인터넷, 웹 그리고 모바일 통신 기술과 스마트폰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 기반기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ICT는 그 중심에 ICBM(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과 AI, Blockchain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기술은 서로 독립된 개체로서 작동하지 않고 유기적 협업 관계를 맺고 있다.

ICT의 구조를 설명할 때 필자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집을 짓는 도면에 비유하여 이들 기술의 연관성을 시각화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장 기저에 기반기술로 깔리는 첫 번째는 바로 안정적인 전기의 공급

구조이며, 다음으로 그 위에 배치되어 다른 기술들이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5G 모바일 브로드밴드(5G Mobile Broadband) 통신 기술이다.



출처: ebadak news

이러한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기반기술 위에 인터넷과 웹 그리고 Blockchain이 성공적으로 얹히게 되면 ICT의 다른 기술들이 비로소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작업 혹은 건물의 바닥과 외관 작업이 완료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치된 구조에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가 다양한 물건, 기계, 사람 등에 적용되고, 이것을 통해 각각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클라우드(Cloud)라는 공간에 저장되고 데이터 종류에 따른 군집화가 완성되면 가치 있는 빅데이터(Big Data)가 생성되어 인공지능(AI)이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컴퓨터, 인터넷, 웹 그리고 모바일 통신기술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촉발되고 발전되어온 디지털 혁명은 산업의 부분적인 연결만을 낳았으며, 지속적인 산업의 생산적 혁신을 이끌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견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산업과 경제시스템 그리고 생산성 혁신을 위한 전 지구적 구조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본격

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은 모든 사물과 정보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산업 간 장벽이 제거되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와 양의 데이터가 생산되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진정한 의미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4차 산업혁명은 ICT의 융합으로 실현되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과 사회시스템은 ‘가상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을 바탕으로 우리의 물리적 세계와 빅데이터가 저장되어, 정제되고 연산되는 가상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작동하게 될 것이다. 즉, 물리적 세계와 가상세계가 융합되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이 조직에 결정적 인사이트(Insight)를 제공해 더욱 현명한 의사결정에 이바지하거나, 빅데이터, IoT,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CPS 기반의 유연한 생산 체계를 현장에 접목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출처: 경북제일신보

5G 모바일 브로드밴드 기술과 IoT로 무장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안내에 따라 실시간 도로와 교통상황을 인지하여 무사히 주행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도시에서 떨어진 낙후지역의 환자가 5G 모바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원격의료 시스템을 통해 이동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블록체인의 신뢰 기반 프로세스 기술을 적용해 중간관리자 없이 소비자와 판매자가 무엇이든 거래가 가능해지고, 은행의 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예는 무수히 많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는 현재 전 세계의 국가와 기업들이 앞다투어 상용화하려고 경쟁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시장에서 누가 먼저 우위를 선점하느냐를 놓고 각 국가와 기업이 모멘텀(Momentum) 전쟁을 치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전의 산업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산업적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신흥국 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관련 스타트업 육성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 예로, 글로벌 IT 기업 구글(Google)이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 회사 ‘웨이모’를 설립해 자동차 부품 모두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General Electric(GE)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업 구조를 조정하고 있다. 중국은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같은 IT 산업 선도기업과 신진 스타트업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적인 유연성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데이터 자본화(Data Capitalism)에 대비해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혹은 ICT 선도 국가와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원천기술을 인공지능(AI)이 아닌 빅데이터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 없는 AI는 아무런 의미 없는 텅 빈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IoT를

기반으로 하는 웨어러블 컴퓨팅,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용 3D 프린팅, 의사 결정용 모바일 슈퍼컴퓨터, 신체 이식형 스마트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의 상용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안면인식 인공지능 개발은 미국이 오랫동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 분야지만, 시장에서의 상용화는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안면뿐 아니라 이것을 응용해 걸음 인식 AI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안면인식 AI 시장에서의 점유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점은 바로 빅데이터의 확보에 필요한 인적자원, 인프라, 그리고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와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하향식 산업정책과 풍부한 기술·인적 자원 그리고 정부 기금과 엄청난 인구로 인해 앞으로 AI 시장에서 미국을 추월해 선도자의 위치로 올라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구글(Google)은 데이터 수집과 정제 그리고 활용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있으며, 이것을 무기로 전 세계시장에서의 주도적 위치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UN산하 통신기구인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IDI(The ICT Development Index: ICT 발전지표)상에서 아이스란드(Iceland)에 이어 세계 2위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한 계단 내려온 상황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IDI 측정 기준이 전화·모바일 통신·인터넷 사용자, 컴퓨터·인터넷·모바일 보유와 사용 비율, 그리고 학교 교육 연수와 직장 재직 비율 등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적 ICT 시장에 대한 지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ITU는 향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기술인 ICT가 변화시킬 사회의 산업 분야로 네트워크, 교통과 수송, 농업, 에너지, 환경, 소비자,

건강, 자동화 등을 꼽았으며, 이러한 산업에서 시장규모가 가장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술을 IoT, Cloud, Big Data 그리고 AI 순이라고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기술과 제도를 발전·개선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들은 독일, 미국, 중국이다. 이들 나라는 각각 2010년, 2011년, 2014부터 정부와 민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동시에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5년에야 정부 차원의 관심이 시작되었으므로 이들 나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늦은 대응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도적 장치를 보면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포지티브 정책(Positive Policy)을 추구하므로 네거티브 정책(Negative Policy) 기조를 가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의 기술과 가격 탄력성이 낮은 측면을 보인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창출될 새로운 시장에서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며, 낮아진 경쟁력은 기술 선도 국가에 종속될 가능성을 증대시켜 국가 이익의 극심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독일의 컨설팅 기업인 롤랜드버거(Roland Berger)의 보고

서에서 언급했듯, 대한민국의 제조업 비중이 G7 국가들과 비교해서 30% 이상 높은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 패러다임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심각한 국가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선 세 차례의 산업혁명이 주는 교훈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초로 하는 기술이 시장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며, 미래를 예견하고 준비하는 기업과 국가만이 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는 여러 변수로 인해 지속성장을 담보하기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대한민국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과 정부가 ICT 산업의 집중화와 정책의 유연한 적용이라는 협업 관계를 만들고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 모델의 발굴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정부이다. 정부의 제도가 얼마나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이 달라진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시장에서의 정책규제에 대한 긍정적 변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네거티브 정책(Negative Policy)의 하나로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했다. 국내의 규제 샌드박스는 타 국가들과는 다르게 금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국내의 신사업 부분은 이전에 만들어진 제도와 규제들이 포지티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장 활성화가 상당히 위축되거나 부진한 상태가 이어졌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기술들인 ICBM(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과 AI, Blockchain의

OPNION

발전 그리고 세계시장 진입과 선도의 측면에서 상당히 뒤쳐진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가 더욱 넓은 산업 분야로 확대 실행되어 기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ICT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기반의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모두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시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4S(stage, strategy, sensitivity, speed)를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ICT라는 무대(Stage)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 그 위에서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과 공략에 필요한 적극적 전략(strategy)으로 무장하고, 변화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변화의 속도(speed)에 대응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권호천

- Global ICT Lab 소장
-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 한국전기공사협회 남북전기협력추진위원회 자문위원
- 前 고려사이버대학교 융합경영학과 교수

국내 정책 및 산업 동향

[2019. 5월]

한국블록체인협회

■ 광주시, 블록체인 기반 개방형 데이터 리워드 플랫폼 구축

-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19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블록체인 기반 개방형 데이터 리워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함
- 이를 토대로 상권 활성화, 유동인구, 차량 흐름 등을 분석해 구도심 활성화와 민간기업의 수익 창출, 재투자 순환구조를 마련하고, 시민이 직접 도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기업과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임
- 해당 사업계획은 블록체인 기업 글로스퍼, 지역 중소기업 등 9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제출했으며 공모 선정으로 광주시는 국비 15억 원과 전문가 자문을 지원받아 사업계획 수립, 대표 솔루션 실증 등을 실시하고, 백운광장, 광주역 주변 등 도시재생사업 지역,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 단지가 들어설 첨단 3지구, 군 공항 이전 부지 등에 모델을 적용할 계획임

■ 삼성전자, ‘삼성코인 결제’ 시범 운영

- 3일 IT 전문미디어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에서 테스트용 메인넷과 삼성코인(가칭)을 통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것으로 확인됨
- 삼성전자 블록체인 TF팀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디지털시티(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해당 시스템의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 그는 “이번 시범 서비스를 위해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텐더민트(코스모스 블록체인 엔진)를 통합해 자체 메인넷을 만들었다”며 “ ‘모바일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는 해당 메인넷 상에서 작동된다”고 설명함

■ 한국블록체인협회, 렌벨캐피탈 관련 다단계투자 주의 당부

- 3일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외국환 거래를 통해 단기간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렌벨캐피탈(Renvale Capital) 관련 다단계업체 투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힘
- 최근 비트코인을 통해 외국환 파생상품 거래로 단기간에 50~60%의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원금과 수익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순환 마케팅 기법을 이용한 다단계 피해가 급증해 피해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4월 24일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과 컨설팅 등을 내세운 투자사기에 공동 경고문을 발표, △손실 위험 없는 지속적인 고수익 보장 △투자사기를 숨기기 위한 복잡한 수익구조 △요구하지 않은 투자상품 권유 △영업지역이 비영업권임에도 미국 등의 연락처 제공 △조건이 과도하게 좋은 투자 △당장 사야 한다는 투자 압박 등을 투자사기 업체의 특징으로 꼽음
- 협회는 국내에도 암호화폐 투자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점을 들어 투자업체 본사가 미국에 있을 경우, 반드시 SEC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미등록 또는 미승인 업체일 경우 투자를 피할 것을 권유함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빗, 결국 폐업

- 7일 팩스넷 뉴스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빗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5월 15일 12시부터 모든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알림
- 트래빗은 “주식회사 노노스는 수차례의 보이스피싱 피해와 대고객 신뢰도 하락 등으로 심각한 경영 악화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파산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힘

■ 삼성전자 전무 “블록체인 사업·지역 화폐 활성화할 것”

- 13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상품전략팀장 채원철 전무는 삼성전자 뉴스룸을 통해 “통신 사업자들과 협력해 블록체인 신분증과 지역 화폐 등 관련 기술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삼성전자 관계자가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 첫 사례로 이와 관련 “갤럭시 S10에 이어 블록체인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점차 확대해 새로운 경험의 장벽을 낮추고자 한다”며 “한국,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서비스 대상 국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함
- 또한 갤럭시 S10 시리즈 ‘블록체인 키스토어’에 대해 “개인 키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했다”며 “다양한 블록체인 앱(DApp, Decentralized App)에서 결제·송금 등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블록체인 키스토어는 별도 보안 운영체제(Secure OS)에서 작동하며, 만일 스마트폰이 해킹당하면 삼성 녹스를 활용해 기능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함

※ 삼성 녹스(Knox) : 삼성전자가 개발, 판매하는 개인, 기업용 모바일 보안 솔루션

■ 두나무, 1년여간 블록체인·핀테크 기업에 총 550억 원 투자

- 15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두나무의 블록체인 투자 전문 자회사인 두나무엔파트너스가 지난 1년간, 26개 기업에 55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투자사로는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 기반으로 결제시스템 혁신을 추구하는 테라, 2월 말 기준 87조 원의 고객 연동자산을 확보한 모바일 자산 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 운영사 레이니스트, 전 세계 3,000만 다운로드 돌파 리듬 게임 ‘슈퍼스타’ 개발사 달콤소프트 등임
- 이강준 두나무엔파트너스 대표는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을 위해 우수 기업 및 잠재력이 부각되는 스타트업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2019년에도 전방위 투자를 통해 기술, 금융 등 분야 블록체인 도입을 가속화하고 우수 업체 발굴에 기여할 생각”이라고 말함

■ 삼성 SDS, 블록체인 헬스케어 플랫폼 추진

- 15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삼성SDS가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해당 플랫폼은 진료, 의료비 영수증, 검진, 건강 관리 등의 정보를 각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블록체인 상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과 인공지능으로 검증하고 자동으로 보험금 정보가 생성돼 정산까지 이뤄진다는 설명임
- 이와 관련 삼성 SDS 관계자는 “보험사, 기업 등 잠재 고객사와 플랫폼 적용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며 “보상은 암호화폐나 토큰이 아닌 삼성페이 쇼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함. 다만 최종적으로 헬스케어 플랫폼이 상용화되기 위해선 의료비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의 협력이 필수라 밝힘
-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비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자체를 고려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현재 고객이 삭제를 원할 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거해야 하는데 블록체인 상 정보는 삭제가 어려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힘

■ 과기정통부, 마이데이터 사업에 블록체인 기술 사용

- 16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본인정보 활용지원(마이데이터) 사업 중 의료 분야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다고 밝힘
- 과기정통부는 의료·금융·유통·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8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중 서울대학교 병원이 주관하는 ‘마이 헬스 데이터(My Health Data)’ 플랫폼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된다는 설명임

- 미디어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블록체인 기업 메디블록, 삼성화재 등과 의료 분야 컨소시엄을 구성, 블록체인 기반 마이 헬스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힘

■ 국내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급증

- 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주거래은행인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이 2018년 자체적으로 적발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건수가 급증함
- 2018년 IBK기업은행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적발 건수는 총 42만 2,200건으로 2017년보다 601.4% 증가함. 대부분은 암호화폐 관련 의심거래 적발 건수이며, 같은 기간 NH농협은행이 적발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적발 건수는 20만여 건임
- 미디어는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주거래은행에서 자금세탁 의심 거래가 증가한 이유는, 이들 은행이 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자금세탁 방지 모니터링을 더 간간하게 운영해 의심거래 건수가 과도할 정도로 큰 폭으로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더욱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과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말함

■ KT·젬알토, 블록체인 기반 커넥티드카 공동 추진

- 21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KT가 글로벌 통신 모듈 개발 기업 젬알토(Gemalto)와 블록체인 기반 커넥티드카 공동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젬알토는 차량용 통신 모듈 제조 기업으로 5G 디지털 ID 및 보안 분야에서 각종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KT의 블록체인 기반 보안 솔루션 기가스텔스(GiGAstealth)를 젬알토의 차량용 통신 모듈에 적용한다는 계획임

■ 과기부, 민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민관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힘
-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2018년 6월 발표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 후속 조치의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 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됨
- 제2기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 물류·유통 ▲ 공공 서비스 ▲ 헬스케어 ▲ 금융 ▲ 에너지 등 5대 전략산업 분야를 선정해 연구할 계획임

■ 미디어, “삼성페이 암호화폐 결합 가능성”

- 21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무선사업부 산하에 있던 블록체인TF를 서비스사업실로 이관한 것으로 전함
- 2019년 3월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10에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와 ‘삼성 블록체인 월렛’ 탑재를 주도한 블록체인TF가 삼성페이 등 스마트폰용 핵심 서비스 개발·운용을 맡는 서비스사업실로 합쳐진 것임
-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최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키스토어-월렛-삼성페이’를 연동하려는 사전 포석을 놓고 있다”고 진단함

■ 금감원 핀테크 혁신실장 “IEO 법적 논의 계획 중”

- 24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 혁신실장이 ‘2019 한국블록체인 학술대회’에서 “IEO에 대한 법적 논의 또한 계획하는 중”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 그는 “현재 암호화폐 취급 업소들을 어느 정도 선까지 제도화할지 논의가 한창이다”라고 부연하였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국제기구의 논의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힘

■ 신한은행, 비대면 대출에 블록체인 자격검증 국내 최초 도입

-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대출 업무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힘
- 협회, 단체, 조합 등에 소속된 자들은 신용대출에 필요한 재직확인서나 소득서류 검증에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야 했으나 해당 시스템은 소속 기관과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일종의 암호화된 일회용 비밀번호(OTP) 정보를 등록·조회해 고객이 소속 기관의 자격 인증과 기타 증명 사실을 모바일이나 PC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
- 신한은행은 우선 ‘신한 닥터론’ 상품에 이 시스템을 적용, 고객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소속 정회원임을 확인받는 과정이 기존 2~3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되었다고 밝힘

■ 시장 혼풍에 국내 코인투자자 급증, 매주 100만명 거래

- 27일 뉴스1에 따르면, BTC 상승세에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100만 명을 회복했다고 보도함
- 미디어는 통계·분석업체 닐슨코리안클릭을 인용,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5월 둘째 주 주간 순 이용자(WAU) 수가 55만 명으로 BTC 가격이 600만 원에 그쳤던 전달 같은 기간 대비 20만 명 이상 급증했다고 전함

- 업계 2위 업비트의 주간 순 이용자도 48만 명에 달하며 전달 대비 20% 이상 늘어났고, 코빗의 주간 순 이용자도 10만 명까지 늘어났으며, 코인원과 비트소닉 등 거래소도 대부분 한 달 새 20% 이상 이용자들이 급증하며 활기를 찾은 모습임
- 위의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국내 투자자 수는 5월 둘째 주에만 100만 명에 달했고, 5월 전체로 보면 약 200만~300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테라·카카오모빌리티, 블록체인 기반 사업 모델 구축 MOU 체결

-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테라가 카카오모빌리티와 블록체인 기반 모빌리티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힘
- 양사는 블록체인을 통해 카카오 T 플랫폼의 서비스 경쟁력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공동 연구하는 등 장기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며, 이와 관련 신현성 테라 대표는 “테라의 혁신적 블록체인 기술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긴밀한 협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힘

■ 북 추정 해커, 업비트 행사 사칭 사이버 공격

-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가 블로그를 통해 “국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이벤트 경품 수령 안내로 사칭한 사이버 공격이 포착됐다”고 밝힘
- 이와 관련 해당 업체는 “이번 사이버 공격의 배후엔 이른바 ‘김수키(Kimsuky)’ 조직이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며 “최근 비트코인이 1천만 원 선을 돌파한 가운데 특정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위협 조직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함

■ 정부 “가상화폐 가격급등 예의주시...불법 행위 엄정 단속”

- 28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가상화폐(가상통화) 시장 동향 점검 회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함
- 이어 그는 “가상화폐 투자 등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정부는 이날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시세 상승에 편승한 사기·다단계 등 불법행위는 검·경 및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함

■ 현대중공업, 블록체인기반 구매시스템 시범사업 완료

- 29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계약 시스템 시범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남
- 현대중공업은 최근 자사 구매종합정보시스템 ‘하이프로(HiPRO)’에 블록체인을 적용했으며, 최근 시범사업을 통해 에이치닥(Hdac) 블록체인 인증서를 탑재함
- 하이프로는 현대중공업그룹과 협력사들이 이용하는 통합구매시스템으로, 현대중공업은 플랜트와 스마트팩토리, 선박 자재 공급망 관리 등에도 블록체인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기부 산하 기관 서버에서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 발견돼

- 29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기관들의 컴퓨터 통신망 서버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이 몰래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킴
- 과기부는 “최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서버에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이 설치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표하고, 국가정보원과 지질자원연구원에 조사단을 파견, 채굴 프로그램을 실제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지질자원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주말 통신망 서버 정기 조사에서 암호화폐 채굴 프로그램을 발견, 즉시 상부에 보고했다”며 “납품업체의 유지 보수 과정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벌인 일로 보인다”고 전함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2019. 5월]

- 미국
- 영국
- 스위스
- 독일
- 중국
- 일본

한국블록체인협회

미 국

■ CFTC 위원장 “암호화폐 파생상품 청산소 등록 증가할 것”

- 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Christopher Giancarlo) 위원장이 미국 하원의원 산하 농업 위원회에서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파생상품 청산소들이 등록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암호화폐 관련 리스크 보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봄
- 이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제공업체 레저X(LedgerX)는 이미 등록이 된 청산소이며, 에리스X(ErisX)와 백트(Bakkt) 등 플랫폼들은 CFTC의 청산기관 운영 표준 DCOs(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s)의 기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임
- 또한 그는 “CFTC 규제 하의 청산소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기관임. 청산소는 양방 거래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믿을 수 있는 중개인 역할을 한다”며 “CFTC는 리스크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역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 ICE CEO “약세장 장기화, 백트에 긍정적”

- 3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ICE(Intercontinental Exchange)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제프리 스프레처(Jeffrey Sprecher)가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약세장 장기화는 백트(Bakkt)에 긍정적”이라고 전함

- 약세장이 백트 오픈에 필요한 시간을 메워줬으며, 다른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의 기업가치를 하락시켜 인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설명임
- ICE 산하 암호화폐거래소 백트는 2018년 12월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며, 2018년 말에는 디지털애셋커스터디컴퍼니(DACC)를 인수,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수탁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 중임

■ JP모건, MS 애저 활용 블록체인 플랫폼 출시 준비 중

- 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JP모건이 MS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를 사용하여 블록체인 플랫폼 ‘Quorum’의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은 이를 통해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배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라 밝히고, 우마르 파루크(Umar Farooq) JP모건 블록체인 프로젝트 총괄은 “해당 플랫폼은 기업이 짧은 시간 내 새로운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필요 없다”고 전함

■ 페이스북,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구축

- 3일 한국경제가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비자, 마스터카드 등 여러 금융업체와 접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전함
- 신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리브라’ 프로젝트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를 개발하고 왓츠앱 메시지 서비스,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송금 및 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알려짐
- 신문은 페이스북이 자사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에 이 결제시스템을 내장해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결제가 이뤄지도록 유도

할 계획으로 내다보았으며, 페이스북에서 이용자가 광고를 보면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함. 일일 사용자 15억 명을 보유한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성공하면 신용카드를 뛰어넘는 네트워크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임

■ 위렌 버핏 “비트코인, 많은 사기와 연결된 도박장치”

- 5일 CNBC 보도에 따르면, 위렌 버핏이 최근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회의를 앞두고 “비트코인은 많은 사기와 연결된 도박장치(gambling device)다”라며 “비트코인은 단지 그곳에 있을 뿐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않는다. 마치 조개 따위와 같으며, 나의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함
- 위렌 버핏은 또 “블록체인은 매우 크지만, 비트코인은 필요하지 않다. JP모건 역시 자체 암호화폐를 들고 나왔다”며 “우리(버크셔 해서웨이)는 아마 간접적으로 블록체인에 관여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의 리더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뉴욕 검찰총장, 비트파이넥스·테더 신용거래 서류 발표 요구

- 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검찰총장실(OAG)이 3일(현지시간)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 테더와의 신용거래 관련 서류 발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남
- 앞서 비트파이넥스는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합리적 계약 조항을 바탕으로 신용 거래 계약을 맺었다”며 뉴욕 검찰총장(NYAG)이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비트파이넥스 거래소가 테더 준비금을 사용해 약 8.5억 달러의 손실을 은폐했다”는 고발 내용에 반박한 바 있음
- 또한, NYAG측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사업을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선에서 추가적인 신용거래를 막는 조치만 취했다”며 “이러한 ‘특

수금지령’은 주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변호인의 명령 철회 요청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과 같다”고 밝힘

■ 기소된 비트파이넥스 자금 이동책, 작년에만 7.4억 달러 처리

- 5일 암호화폐 미디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자금 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레지널드 파울러(Reginald Fowler)를 조사 중인 미 사법 당국이 거래 정황이 담긴 리스트를 확보하였다고 밝힘
- 당국은 파울러의 이메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Master US workbook’이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발견하였고 해당 리스트에 따르면, 파울러는 지난 2018년 한해 약 7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처리함. 2019년 1월 기준 미국 국내외 60개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같은 시점 전체 계좌의 누적 잔액은 약 3억 4,500만 달러로, 이 중 5,000만 달러만 미국 국내 계좌에, 나머지는 해외 은행 계좌에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미국 CFTC “규제 당국, ETH 선물 출시 승인 예정”

- 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고위 관계자가 “규제 당국이 이더리움(ETH) 선물 출시를 승인하고자 한다”며 “전제는 해당 선물 계약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함
- 또한 그는 “CFTC는 의견을 내놓기보다는 당국에 제출된 신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덧붙임
-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CFTC의 규제를 받는 ETH 선물 상품이 광범위한 기관 투자자에게 개방되면,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 기관에 신뢰를 주고 ETF 승인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내다봄

■ 비트파이넥스·테더 “사기도, 피해자도 없다” 법원 명령 철회 요구

- 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모회사인 아이파이넥스(iFinex)가 앞서 뉴욕 검찰총장실(NYAG)이 제기한 혐의에 대한 공식 법원 답변서를 내놓았다고 밝힘
- 아이파이넥스 측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에 발효된 법원 명령이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사실과 잘못된 법적 기준을 근거로 둔다”고 주장하였으며, “계속되는 사기나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극단적 처리 명령은 필요치 않다”며 “NYAG는 먼저 해당 분야 규제에 대한 권위를 수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블룸버그 “피델리티, 몇 주 안에 기관투자자 대상 BTC 트레이딩 개시”

- 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운용자산 규모 7조 달러의 금융 공룡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s)가 자회사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을 통해 몇 주 안에 기관투자자를 위한 BTC(비트코인) 트레이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힘
- 알렌 로버츠(Arlene Roberts) 대변인은 “BTC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전함. 앞서 피델리티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의 47%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FedEx·UPS·DHL, 각국 정부에 블록체인 표준 도입 촉구

- 7일 블록체인 커뮤니티 더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블록체인 글로벌 레볼루션 컨퍼런스에서 물류 운송회사 페덱스(FedEx), 유피에스(UPS), 디에이치엘(DHL)이 국제 해운 블록체인 표준 채택을 각국 정부에 촉구한 것으로 나타남

- 롭 카터(Rob Carter) 페덱스 CIO는 “각국 정부는 블록체인 표준 도입으로 위조품, 불법 상품 밀매를 예방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이 현재 사용하는 디지털 문서 전송 시스템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강조함

■ 뉴욕 법원 판사 “비트파이넥스 대상 ‘모호한’ 중지 명령 범위 축소해야”

- 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법원의 조엘 M. 코헨(Joel M. Cohen) 판사는 비트파이넥스가 테더로부터 차용한 8.5억 달러 대금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하는 한편, 뉴욕 검찰총장(NYAG)이 4월 말 제기한 예비적 중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 범위가 일부 축소되어야 한다고 밝힘
- 그는 “현재 비트파이넥스에 적용되고 있는 중지 명령은 모호하고 확실한 범위가 없어 즉각적인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원고와 피고에게 1주일 뒤 법원 명령의 적용 범위에 대한 공동 또는 개별 제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함

■ MS,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Azure용 ETH 앱 개발 킷 릴리즈

- 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애저(Azure)에서 사용 가능한 ETH 기반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킷(Development Kit)을 공식 릴리즈했다고 전함
- 개발자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당 킷을 통해 애저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ETH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게시할 수 있음. 또한 해당 킷은 마이스로소프트 소스 코드 편집기 비주얼스튜디오(Visual Studio Code)를 확장해 만들어졌으며, ETH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발 및 게시, Solidity, Truffle 등 오픈소스 블록체인 툴 또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임

■ 미국 국토안보부 “악성 트레이딩 봇, 탈중앙화 거래소 보안 위협”

- 8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가 최근 네트워크 보안 연구기관 코넬테크의 보고서를 인용, 탈중앙화 거래소의 ‘낮은 효율’을 악용, 부당 이득을 편취하고 있는 봇 사용 유저들을 경고함
- 코넬테크는 이들이 매년 수백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에 이르는 암호화폐를 불법적으로 갈취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 국토보안부는 “일부 거래소에서 더 비싼 수수료에 따른 우선순위 배분이, 어떤 면에서는 블록체인 생태계에 보안을 위협하고 있다”고 부연함

■ 다단계 스캠 프로젝트 원코인, 투자자들 집단 소송

- 8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다단계 스캠 프로젝트 원코인(OneCoin)에 투자한 크리스틴 그래블리스(Christine Grablis)가 원코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함
- 그래블리스는 다른 원코인 피해자들을 위해 손해 배상 청구소송과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며,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하여 원코인 창업자 Ruja Ignatova, 창업자 동생이자 원코인 임원 Konstantin Ignatova가 피싱 사기, 증권사기, 돈세탁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고 전함

■ 일리노이 주정부, 블록체인 도입 법안 검토

- 9일 현지 온라인 미디어 제니시오리퍼블릭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 주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HB 3575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해 해당 법안 지지자인 데이브 켈러(Dave Koehler) 하원이 “매달 수십만 명의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도난당하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며 “지방 정부는 블록체인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소비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진단함

- HB 3575 법안에 따르면, 지방 정부는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법정에서 중요 기록, 증거, 법률 조건 및 서명 등을 저장할 수 있음

■ SEC,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암호화폐 관련 업무 발표

- 9일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회계연도 SEC 예산안을 위한 증언인 ‘Testimony before the Financial Services and General Government Subcommittee of the U.S. Senate Committee on Appropriations’ 를 발표함
- 해당 내용에 따르면, 클레이튼 의장은 지난 2018년 회계연도 검토를 통해 2019년 예산 심사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OCIE(Office of Compliance Inspections and Examinations)를 통해 고위험군 분야, 특히 (1) 거래소 및 청산 기관 등 중요 시장 인프라의 규정 준수 여부 (2) 암호화폐, 코인, 토큰 등 디지털 자산 (3) 사이버 보안 (4) 자금세탁 방지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 SEC, 디지털 자산 감독 업무직 신설 정식 검토

- 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두 금융기관의 의장이 참석한 국회 예산 청문회에서,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SEC 의장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고위험 투자에 대한 SEC의 검토를 통해 거래 시장 부문에서 4개의 신규 직위를 추가해 디지털 자산을 감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 또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Christopher Giancarlo) 위원장은 “CFTC는 단순히 커뮤니티와 시장 중개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함

■ SEC 위원 “암호화폐 관련 규제 마련 ‘답답’ ...업계 발전 우려”

- 1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가 최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증권법 집행 포럼에서 “규제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마련이 더디다”고 지적함
- 그는 이와 관련해 “1년 전 나는 SEC의 성급한 규제로 암호화폐 산업이 초기에 타격을 입을까 봐 우려했으나 이는 현실이 되지 않았다”며 “암호화폐 산업을 현재 억누르고 있는 것은 우려하던 SEC의 ‘서두름’이 아닌, 의미 있는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SEC는 아직 대중이나 FINRA(금융산업규제기구)의 핵심 질문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많은 예비 중개인과 거래 플랫폼들이 답답한 대기 상태에 빠져 있고, 이 시장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임

■ 나스닥 리퀴드 인덱스, 비트파이넥스 데이터 사용 중단

- 10일 나스닥 리퀴드 인덱스(Liquid Index)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브레이브 뉴 코인(Brave New Coin)이 거래소 가격 차이와 투명성 결여를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데이터 사용을 잠정 중단할 방침임
- 브레이브 뉴 코인은 추가 검토를 하기 전까지 BTC·ETH·XRP 리퀴드 인덱스에서 비트파이넥스 데이터를 제거하기로 함
- 리퀴드 인덱스는 BTC, ETH, XRP 세 암호화폐의 실시간 가격 변동을 추종하는 지수로, 앞서 2019년 4월 말 뉴욕 검찰총장은 비트파이넥스가 테더 준비금을 사용해 손실을 은폐했다고 폭로하며 예비적 중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린 바 있음

■ USCF, SEC에 암호화폐 ETF 승인 신청

- 1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총자산 5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상품 펀드(USCF, United States Commodity Funds)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새로운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신청서를 제출함
- 해당 ETF 상품(종목코드: XBET)은 크레센트 크립토 인덱스 서비스(Crescent Crypto Index Services LLC)가 출시한 것으로, BTC·ETH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추종하며, XBET이 추가되면서 SEC가 현재 심사 중인 암호화폐 ETF는 3개로 늘어남
- 다른 2개는 각각 비트와이즈애셋매니지먼트와 NYSE 아카(Arca)가 공동으로 신청한 BTC ETF, 반에크(VanEck)·솔리드X·CBOE BZX 거래소가 공동 신청한 BTC ETF임

■ 미국 사법부, SIM 해킹 암호화폐 탈취범에 7,500만 달러 배상 판결

- 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 법원이 SIM 카드를 해킹해 타인의 암호화폐를 훔친 니콜라스 트루글리아(Nicholas Truglia)에게 피해자에 7,5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미디어에 따르면 니콜라스 트루글리아는 암호화폐 지갑에 등록된 피해자 전화번호를 해커 소유 전화기에 연결하는 해킹 기술을 통해 현지 사업가 마이클 터핀(Michael Terpin)의 암호화폐를 빼돌렸다고 밝힘

■ MS 관계자, “기업 블록체인 도입 가속화...갤럭시 S10 대표적”

- 1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크립토티어링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가 요코 로도스(Yorke Rhodes)가 “블록체인은 과거 인터넷과 비교해 전면적으로 기술을 도입하는데 여전히 적지 않은 장애물이 있다”고 밝힘

- “다만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인프라 개선, 블록체인 및 Web3.0 시스템 채택 움직임이 빨라지는 추세이며, 삼성 S10, Opera 브라우저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그는 “JP모건, 마이크로소프트, 언스트앤영(EY) 등 대형 기관 시장 진출이 빨라질수록 블록체인에 대한 진입장벽이 한층 더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임

■ 마이크로소프트,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 신원 인증 솔루션 출시 예정

- 13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기반의 탈중앙화 신분식별 오픈 소스 프로토콜인 아이온(ION)을 출시한다고 밝힘
- 해당 프로토콜은 서로 다른 서비스 간의 탈중앙화 개인정보 데이터 공유를 위한 프라이빗 키 소유 증명 및 식별을 제공하며, 요크 로데스 마이크로소프트 블록체인 개발팀의 프로젝트 책임자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년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퍼블릭 체인에서의 신분 인증 및 검증 솔루션 구현을 연구해왔음
-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현재 많은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프로토콜이 해당 제품들과의 통합을 통해 다양한 탈중앙화 기반 신원 데이터 식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함

■ IBM, 블록체인 5대 원칙 발표

- 13일 IBM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의 5대 원칙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원칙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기업 블록체인을 구축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임

- 첫째, 개방형을 지향한다. 둘째, 허가됨이 사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셋째, 거버넌스는 팀 스포츠다. 넷째, 표준이 곧 상식이다. 다섯째, 프라이버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 백트, 오는 7월 비트코인 선물 거래 테스트 서비스 시작

- 13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BTC 선물 거래소 백트(Bakkt)의 켈리 로플러 백트 CEO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오는 7월 비트코인 선물 거래 및 자산 위탁 서비스의 이용자 수용 테스트 운영(User acceptance testing)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몇 주 내로 이를 위한 고객사들과 협력을 시작한다”고 밝힘
- 코인데스크는 이번 발표에 대해 “백트가 제안한 커스터디(자산 위탁)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거래 청산은 모회사인 ICE의 웨어하우스에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승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단함

■ 이베이 “암호화폐 결제 지원 계획 없어...관련 제품 판매할 뿐”

- 1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트러스트노드(trustnodes)가 이베이(eBay) 대변인 캔디스(Candace)를 인용해 “이베이는 암호화폐 채굴기 및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이베이가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흥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계획은 없다”고 밝힘

■ 미국 하원의원 “하드포크 암호화폐 보유분에 조세 혜택 제공”

- 15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이 컨센서스 2019에서 하드포크로 암호화폐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을 재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조세 피난처(Safe Harbor)를 제공해 미국 국세청(IRS)이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발표할 때까지 하드포크로 취득한 보고되지 않은 자산을 처벌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임
- 그는 “블록체인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지닌 사람들은 많지 않으며 많은 사람은 암호화폐에 대해 다크웹 ‘실크로드’와 관련된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말함

■ 딜로이트, 올해 내로 대규모 이더리움 기반 프로젝트 출시

- 16일 암호화폐 미디어 CCN이 세계 최대 회계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가 올해 내로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미디어가 최근 딜로이트의 고객에 또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비체인(Vechain)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이더리움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라고 묻자, 안토니오 세나토레 딜로이트 블록체인 부분 CTO는 “딜로이트는 멀티 플랫폼 개발을 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50% 이상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아주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착수할 것”이라고 답함

■ 아마존, PoW 시스템 관련 특허 출원

- 1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이번 주 작업증명(PoW) 시스템 관련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밝힘

- 해당 시스템은 암호화 기술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 구조의 콘텐츠를 검증할 수 있는 머클트리(Merkle tree)를 생성한다는 설명임
- ※ 머클트리(Merkle tree) : 블록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료구조

■ 뉴욕 법원 “비트파이넥스, 합법적인 사업은 보장돼야”

- 17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최고법원 조엘 M. 코헨(Joel M. Cohen) 판사가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밝힘
- ①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제외하고 테더는 그 어떤 자산도 비트파이넥스나 다른 사업체에 빌려줄 수 없다.
 - ② 테더는 급여 지급, 컨설턴트 등 일반 지출 외에 임직원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준비금을 지급할 수 없다.
 - ③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양측 모두 뉴욕 검찰총장(NYAG)의 소환장을 수정할 수 없다.
 - ④ 금지령은 90일 후 해제되지만 NYAG(New York Attorney General)는 2주 전 법원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 미국 재무부 인사 “FATF, 6월 글로벌 압호화폐 규제 표준안 발표”

- 20일 시카고 맨델커 미 재무부 산하 테러 금융정보 책임자가 뉴욕에서 진행된 컨센서스 2019에서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FATF)의 규제 표준안이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미국은 향후 글로벌 주요 국가들과 협력해 전 세계 국가 정부들이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뤄지는 일들과 서비스 제공자들을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FATF는 6월 최종적인 해석이 담긴 가이드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함

■ SEC, 반에크·솔리드 X BTC ETF 승인 결정 연기

- 2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이더리움월드뉴스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개문서를 통해 “반에크·솔리드X BTC ETF 승인 결정을 8월 19일까지 90일 추가 연기한다”고 밝힘
- SEC 측은 최근 테더와 비트파이넥스 사태, 비트스탬프 가격 급락 사태 등을 거론하며 ‘사기 및 조작행위에 대해 우려’가 해당 연기 결정을 뒷받침했다고 덧붙임

■ NYSE Arca, SEC 규정 변경 요청...ETF 상장 추진

- 2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 아카(NYSE Arca)가 비트코인 투자 신탁 주식 상장을 허가하는 규칙 변경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식 신청함
- NYSE는 신청서에서 “윌셔 피닉스(Wilshire Phoenix)가 운용하는 ‘미국 비트코인 및 재정 투자신탁(The United States Bitcoin and Treasury Investment Trust)’은 비트코인 및 단기 재무부 증권에 투자할 예정이며, 해당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로 관리될 것”이라며 “핫월렛과 콜드월렛의 도난에 대비해 에이엠베스트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선두 보험사들로 구성된 신디케이트로 최대 2억 달러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힘
- 이는 NYSE Arca와 비트와이즈가 상장을 추진 중인 BTC ETF와 별개의 요청으로, SEC는 45일 내로 해당 제안을 승인, 거부 또는 연기해야 하며, 90일 내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함

■ 미국 월가 증권사,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 투자

- 2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월가 브로커리지(주식 매매 중개) 증권사 TD 아메리트레이드(TD Ameritrade)가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 Eris-X에 투자함
- 구체적인 투자액은 알려지지 않았고, Eris-X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소로서 향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현물·선물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웹사이트를 통해 “Eris-X와 공동으로 암호화폐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할 것”이라고 밝힘

■ 다크넷 ‘히드라’ 관련 주소, 다수 거래소 통해 자금세탁 시도

- 2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5월 19일(현지시간) 한 익명의 BTC 주소에서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로 2,000 BTC를 이체함
- 한 트위터 유저 ‘CryptoMedication’ 해당 익명 주소를 추적한 결과, 해당 주소는 다크넷 마켓플레이스 ‘히드라’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는 해당 주소가 비트파이넥스에 이체한 2,000 BTC가 워시트레이딩, 믹싱, 자금세탁 등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다며 코인베이스, 후오비, 비트렉스, 비트파이넥스 등 거래소에 해당 주소 관련 거래소 계정을 폐쇄할 것을 촉구함

■ 미국 저작권청 “크레이그 라이트, 사토시로 인정하지 않았다”

- 2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최근 미국 저작권청(the U.S. Copyright Office)이 배포한 보도자료 인용 “미국 저작권청은 크레이그 라이트를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로 인정한 게 아니다”라고 보도함

- 미국 저작권청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청이 저작권 등록 신청을 접수하면, 피청구인은 본인이 제출한 자료 및 작품의 진위성을 증명해야 하고, 해당 자료 및 작품의 저자가 가명으로 등록됐을 경우, 저작권청은 필명을 쓴 저자와 신청인의 연관성 혹은 자료의 진위성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힘

■ SEC, 2,600만 달러 암호화폐 사기 용의자 기소

- 24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로 포장한 무허가 증권을 팔아 폰지 사기를 통해 2,6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빼돌린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남성 다니엘 파체코(Daniel Pacheco)를 기소했다고 전함
- SEC에 따르면, 용의자는 피라미드 마케팅 방식을 채택해 사기를 벌였으며 빼돌린 2,6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사용해 부동산, 고급 세단 등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음

■ 미국 2위 이동통신사, ‘비트페이’ 통해 암호화폐 결제 지원

- 24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2위 이동통신사 AT&T가 공식 채널을 통해 암호화폐 결제 대행업체 비트페이(Bitpay)를 통한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케빈 맥도먼(Kevin McDorman) AT&T 부사장은 “암호화폐 사용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방식의 통신요금 지불 옵션을 제시할 수 있어 기쁘다”며 “AT&T는 항상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임

■ 외신 “암호화폐 대출액, 뉴욕 블록체인 위크 기간 동안 4배 증가”

- 24일 암호화폐 전문 리서치 업체 겸 미디어 룡해시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기간 동안 각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들의 대출액이 행사 시작 전 대비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월 17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미국 뉴욕 블록체인 위크 기간 메이커다오(MakerDAO) 암호화폐 대출액은 행사 시작 둘째 날 대비 1,000% 상승한 230만 달러를 기록함. 또한, 최근 30일 동안 6,500건 이상의 신규 대출이 체결됐으며, 대출액은 총 3,100만 달러 이상을 나타냄
- 5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다르마에서 발생한 신규 대출액은 약 73만 5,000달러로 월간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이는 블록체인 위크 첫날 대비 2,127% 증가한 수치임
- 또 다른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컴파운드의 암호화폐 대출액은 기존 대출액 총합인 19.5만 달러에서 5월 20일(현지시간) 약 85만 1,000달러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외신 “피델리티, 사옥 내 BTC 채굴기 설치”

- 26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뉴스BTC가 제보자를 인용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텍사스 사옥 내 BTC ASIC 채굴기들이 설치되어있다”라고 보도함
- 미디어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CEO 아비가일 존슨(Abigail Johnson)이 사무실에서 BTC를 채굴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난 2015년에도 나온 바 있다며, 피델리티 내부에 열성적인 암호화폐 옹호자들이 존재한다고 전함

-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2만 명의 기관투자자 고객들을 위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와 거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객 중 대다수는 디지털 자산이 향후 그들의 포트폴리오 일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 의회 조사국 “BTC 아직은 투기 용도에 불과”

- 29일 더넥스트웹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이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암호화폐의 핵심인 분산식 장부 시스템은 아직 대규모 거래를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이며, 현재의 암호화폐는 사실상 투기 용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 CRS는 “비트코인의 시세는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비트코인과 전통 금융시스템의 일별 이체 횟수를 비교한 결과 BTC의 이체 수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분석함

■ 미국 공화당·민주당, 블록체인 신흥기술 이니셔티브 지정 ‘공동요구’

- 30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미국 공화당 소속 트레이 홀링스워스 하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데런 소토 플로리다 주 지역구 하원의원이 초당파 공동 서한을 통해 “미국 국가 경제 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가 블록체인을 트럼프 정부의 신흥기술 이니셔티브 리스트에 추가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함
- 국가경제위원회는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춘 대통령 자문단으로, 2018년부터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래리 쿠들로 의장에게 서한이 전달됨

■ 미국 AP통신, 보도지침에 ‘암호화폐’ 추가...“가상화폐와 혼동 안 돼”

- 30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AP 통신이 새롭게 업데이트된 2019년 보도지침에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 보도지침은 암호화폐에 대해 “암호화 기술로 안전성을 보장한 디지털 화폐로 암호학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크립토(Crypto)’로 줄여 써서는 안 된다. 암호화폐와 가상화폐는 다르다. 가상화폐는 온라인 게임과 같은 가상세계에서 사용되는 화폐다. 암호화폐는 범죄 세력이 선호하는 지불 수단의 하나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추적이 가능하지만, 해당 계좌의 소유주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함

■ 포브스 “미중 무역 전쟁에 BTC 리스크 회피 수단 부상”

- 30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비트코인(BTC)가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보도함
- 이와 관련 미디어는 “최근 BTC는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중국의 업계 규제 상황을 볼 때 BTC 투자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만약 중국이 투자를 고려한다면 BTC는 미중 무역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함
- 미디어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3월 매도한 미국 국채는 104억 달러로, 2년 반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고,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는 1조 1,2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힘

■ 미국 국가 정보국, 북한 암호화폐 관련 사이버 범죄 적극 제재

- 31일 코리아헤럴드가 미국 현지 국영 미디어 VOA(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인용 “북한이 제재에 맞서 암호화폐 채굴 및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미국 국가정보국은 이에 적극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전함
- 토냐 유고레츠(Tonya Ugoretz) 미 연방수사국(FBI) 정보부 부국장(deputy assistant director)은 “북한은 과거 2014년 소니픽처스 엔터

해외 정책 및 산업 동향

테인먼트의 해킹, 2016년 8,100만 달러를 탈취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건,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라고 밝혔으며, 미국 국가정보국(NIS) 산하 사이버위협정보통합센터 에린 조(Erin Joe) 소장은 “미국 정부 기관들을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범죄인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 영국 금융기업, 블록체인 시장 인프라 플랫폼 출시 예정

- 1일 핀테크 전문 온라인 미디어 बैं킹테크에 따르면, 영국 소재 금융기업 FNZ가 글로벌 펀드매니저 컨소시엄과 파트너십을 체결, 자산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시장 인프라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임
- FNZ 측은 이와 관련해 “글로벌 펀드 산업은 투자자, 관리자 및 플랫폼 간의 수많은 P2P 연결에 의존하고, 이러한 트랜잭션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지 않아 높은 비용을 초래한다”며 “우리는 펀드 산업의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고, 자산 운용사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법에 혁신을 가져올 계획”이라고 밝힘

■ 런던증권거래소 CEO “금융업계, 블록체인 도입 움직임 활발”

- 2일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런던증권거래소(LSE) Nikhil Rathi CEO가 해당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주식 발행, 거래 정산 등에서 블록체인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금융업계 신기술 경쟁 움직임을 지지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일부 극단적 현상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런던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니바우라(Nivaura)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내 주식 발행, 거래 업무 효율성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해당 테스트를 실제 서비스로 확대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 영국 블록체인 규제 TF팀,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 업계 발전 저해”

- 10일 영국 정책 전문미디어 로우가제트에 따르면,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책 연구 태스크포스팀 로우테크 딜리버리 패널(LawTech Delivery Panel, 이하 패널)이 현지 법원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

련 자산 분류 및 규제 명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호소함

- 이와 관련해 패넬 팀은 “암호화폐가 잉글랜드 및 웨일스 사법 영역에서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와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정의에 대한 불확실성은 신홍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현지 법원과의 협의를 시작함

■ FCA, 영국 암호화폐 관련 사기 3배 증가

- 21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영국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조사를 인용, 영국 내 암호화폐 및 외환 관련 사기가 지난 회계연도 기준 530건에서 1,83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함
- 반면 같은 기간 총 손실액은 3,800만 파운드(4,800만 달러)에서 2,700만 파운드(3,400만 달러)로 감소했으며, 1인당 평균 손실액은 5만 9,600파운드(약 7만 5,827달러)에서 1만 4,600파운드(약 1만 8,575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 국가 기록 보관소에 블록체인 ‘디지털 지문’ 도입

- 29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서레이(Surrey) 대학 연구팀이 세계 국가 영상 기록 보관소의 영국 디지털 정부 기록을 위변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힘
-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연구팀은 영국 오픈 데이터 연구소와 국가 기록 보관소와 협력해 ‘ARCHANGEL’ 이라는 이름의 블록체인 및 컴퓨터 비전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 상태이며, 존 콜로모세 서레이 대학교수는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지문 솔루션을 통해 기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함

스 위 스

■ 스위스 증권거래소 SIX, 디지털 화폐 발행 가능성

- 6일 온라인 금융 전문미디어 파이낸스매그네이츠가 스위스 증권거래소의 소유 기업인 ‘SIX’의 대표 토마스 지브(Thomas Zeeb)가 자체 토큰을 발행하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해 지브는 “올여름 늦게 ‘최초 디지털 발행(IDO, initial digital offering)’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SIX 토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SIX는 내년 초 ‘디지털 자산 거래소(SIX Digital Exchange, SDX)’를 출범할 계획도 갖고 있다”며 “해당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올여름 막바지에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스위스 온라인 은행 두카스카피, ‘두카스코인’ 사용범위 확대

- 8일 온라인 경제 전문미디어 파이낸스매그네이츠에 따르면, 스위스 소재 온라인 은행 두카스카피(Dukascopy)가 자체 발행 암호화폐 두카스코인(Dukascoin)의 사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사용자는 두카스카피 마진 거래 플랫폼에서 두카스코인을 통해 법정통화, 귀금속, 지수, 주식, 채권, BTC, ETH, 석유, 천연가스 등을 비롯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설명임

■ 스위스계 스타트업, 왓츠앱 전용 암호화폐 거래 봇 출시

- 20일 스위스 블록체인 스타트업 줄루 리퍼블릭(Zulu Republic)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 산하 채팅 앱인 왓츠앱(WhatsApp) 전용 암호화폐 거래 지원 봇을 개발했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이용자는 BTC, LTC 등 암호화폐를 전송 및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임

■ 스위스 증권거래소 SIX, 스위스 프랑 연동 스테이블 코인 출시 예정

- 2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스위스 증권거래소의 운영사인 SIX 그룹이 스위스 프랑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여 SIX 디지털 자산 거래소(SIX Digital Exchange, SDX)에서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명품시계 브랜드 프랭크 물러, 한정판 ‘비트코인 시계’ 출시

- 2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인 프랭크 물러(Franck Muller)가 한정판 비트코인 시계 ‘Encrypto’를 출시하고, 잔액 확인 및 입금에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주소가 QR 코드 형태로 시계 전면부에 삽입됐으며, 시계와 함께 동봉된 USB 콜드 월렛으로 프라이빗키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는 설명임
- 해당 모델은 현재 두바이 물 지점 및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및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고, 프랭크 물러는 향후 이더리움, 리플 등 TOP 5 코인을 주제로 한 모델을 선보일 예정임

■ 스위스 국영 통신사, 블록체인 결제 지원 TV앱 출시

- 23일 유럽 현지 미디어 디지털TV 유럽에 따르면, 스위스 국영 통신사 스위스콤(Swisscom)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를 지원하는 TV 앱을 출시함
- 해당 앱은 큐레이터가 선정한 30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가상 예술 작품 100여 점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더리움 ECR721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 예술 작품의 소유권을 인증함

독 일

■ 독일, 오는 여름 블록체인 기반 채권 발행 허용 규정 발표 예정

- 10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오는 여름 블록체인 기반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할 예정임
- 독일 행정부 내 블록체인 관련 취재원인 토마스 힐만 교수에 따르면, 해당 초안은 이미 당국 인사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미 관련 논의의 결론이 담긴 문건이 만들어진 상태임
- 독일 정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터라 해당 규정이 독일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프랭크 셰플러 독일 자유민주당 내 IT 정책 전문가가 “독일 정부가 드디어 눈을 떴다”고 평가함

■ 독일 2대 거래소, XRP·LTC ETN 상품 출시 승인

- 13일 암호화폐 미디어 CCN에 따르면, 독일 2대 증권거래소이자 유럽에서 9번째로 큰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가 LTC와 XRP의 ETN 거래 출시를 승인함

※ ETN :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증권 형태로 만든 상품으로, 상장지수증권이라고도 함

- 이와 관련해 거래소 측은 “독일에서 처음으로 투자자들이 ETN을 기반으로 LTC와 XRP를 사고팔 수 있게 됐다”며 “해당 상품은 유로화와 스웨덴 크로나화 기반의 암호화폐 가격을 추종한다”고 설명함

■ 독일 금융당국 “BTC, 돈세탁 범죄 악용인지”

- 2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돈세탁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면서 BaFin은 “연방 정부는 암호화폐나 ICO 프로젝트 관련 공개된 범죄 사건 외에 별도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고, 경찰 당국은 암호화폐 관련 사기 또한 금융 사기로 분류하고 일괄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함

■ 독일 비트본드, 당국 승인 첫 증권형 토큰 발행

- 2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독일 블록체인 기반 대출 플랫폼 비트본드(Bitbond)가 독일 최초로 규제당국(BaFin)의 승인을 받은 증권형 토큰을 발행한다고 전함
- 비트본드는 이번 STO로 350만 유로를 모집해 계속해서 중소기업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분데스뱅크 총재 “블록체인, 은행업에 돌파구 될 수 없어”

- 29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CCN 보도에 따르면, 차기 유럽 중앙은행(ECB) 총재로 거론되는 옌스 바이드만(Jens Weidmann) 분데스뱅크 총재가 블록체인 도입 시범사업이 실패했다고 밝힘
- 그는 블록체인이 더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이 기술이 은행 업계에 돌파구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으며, 그가 언급한 시범사업은 분데스뱅크와 증권거래소 도이치보르제(Deutsche Boerse)가 공동 추진해 2018년 말 마무리한 사업임
- 해당 프로토타입은 금융 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규제 기능은 수행했지만, 현재 표준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속도가 느렸다고 미디어는 전함

중 국

■ 前 중국은행 은행장 “블록체인, 금융 거래 효율성 확보 가능”

- 8일 4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의 前 은행장인 리리후이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블록체인은 낮은 신뢰 관계에서도 기술적 지원을 통해 비즈니스 신뢰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고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포용적 금융’ 정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며 “블록체인은 퍼블릭체인 구조를 통해 다자간 참여 시스템 및 고효율 네트워크를 구축, 금융 거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함

■ 바이낸스, 해킹으로 7,000 BTC유출...입출금 중단

- 8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7일 오후 17:15(현지시간) 해킹 공격으로 7,000 BTC가 유출됐다고 공지함
- 해커는 대규모 시스템 공격을 통해 대량의 사용자 API 키, 2FA 코드 등 정보를 획득했으며, 피싱, 바이러스 등 복합적 수단이 사용됐다고 밝혔고, 해당 BTC 유출은 핫월렛에서 한 개 트랜잭션(해시값 ‘e8b406091959700dbffcff30a60b190133721e5c39e89bb5fe23c5a554ab05ea’)을 통해 이뤄졌으며, 거래소 BTC 보유분의 2%에 해당하는 손실이 일어났다는 설명임
- 바이낸스는 SAFU 펀드를 사용해 이번 손실에 대처, 사용자의 자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부연하였으며, 바이낸스는 향후 1주일간 전체 데이터에 대한 보안 심사를 진행, 해당 기간 입출금 서비스가 정지된다고 밝힘

■ 샤오미 그룹, 가상 은행 라이선스 취득...블록체인 등 기술 활용

- 10일 중국 현지 미디어 시나IT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중국 샤오미 그룹이 홍콩 금융기관 AMTD 그룹과 두 기업의 합작사인 인사이트 핀테크(Insight Fintech HK Limited)가 홍콩 금융 관리국이 발행하는 가상 은행(인터넷 전문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공동 발표함
- 이와 관련해 인사이트 핀테크 측은 “최신 핀테크 기술과 기존 전통 금융 기술을 융합해, 블록체인 및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고객들의 사용 체감을 높ی겠다”고 전함

■ 중국, 식품 안전 모니터링 정책에 블록체인 도입

- 20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한 개혁안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향후 빅데이터 기반의 식품 안전 정보 플랫폼을 구축,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블록체인 응용을 지원하는 ‘인터넷+식품’ 모니터링 정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를 통해 식품 안전 관련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온라인에서의 원스톱 식품 안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임

■ 중국 알리바바 산하 블록체인 플랫폼, 40개 정부 기관 도입

- 22일 중국 경제 미디어 증권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대표 IT 기업 알리바바 산하 온라인 금융 사업 총괄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의 앤트블록체인 플랫폼이 이미 현지 40개 정부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밝힘
- 이와 관련 장궈페이 앤트파이낸셜 부총재는 “앤트블록체인 플랫폼이 항저우 인터넷 법원 등 정부 기관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며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 도입 이후 업무 효율성이 두 배 이상 향상됐다”고 강조함

■ 중국, 블록체인 특허 및 실질 응용 미국 앞서

- 25일 중국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체인디디에 따르면, 중국의 분산형 데이터 저장 관련 특허 출원 수는 총 24만 건으로 미국 8만 건을 상회하였으며, 1분기 기준 블록체인 실질 응용 건수는 중국 78개, 미국 26개였다고 밝힘

■ 중국 쓰촨성, 무허가 BTC 채굴장 적발

- 3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간쯔현 당국이 무허가 비트코인 채굴장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해당 채굴장은 전기료가 저렴한 수력발전소 근처에 지어졌으나 사전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전함
- 이와 관련해 당국은 “현재 해당 사건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고 설명함

일 본

■ 일본 국세청 암호화폐 ‘기타 소득’ 분류, 기존 입장 유지

- 14일 일본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재팬에 따르면,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일본 국세청이 “당분간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소득을 ‘기타 소득’ 으로 분류할 생각”이라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해 후지마키 다케시 의원은 “지난주 하루히코 쿠로다 일본 은행 총재가 암호화폐가 지급이나 결산 등 실생활에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국세청 등 당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 법률적 정의를 유지하길 원한다”고 말함

■ 일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2개월간 신규 계좌 수 200% 증가

- 22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일본 3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Bitpoint, DMM Bitcoin, Coincheck 공동 데이터 집계를 인용, 2019년 3월 이래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계좌 수가 20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중 Bitpoint의 일평균 신규 계좌 수는 3월 대비 약 3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DMM은 2배, Coincheck는 3배 증가했다고 보도함

■ 일본 금융청, ‘익명 거래’ 제공 거래소 단속 강화

- 23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일본 금융청(FSA)이 익명 거래 서비스 제공 및 신원 검증 절차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금융청의 암호화폐 거래소 단속 강화는 금년 가을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FATF)의 감사를 앞둔 행보라는 게 미디어 측의 분석임

■ 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ETF에 신중한 태도

- 30일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재팬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임
- 이날 열린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켄지 후지마키(Kenji Fujimaki) 의원은 “미국에서 암호화폐 ETF 승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른 나라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ETF가 출시되면 해킹 위험도 감소한다”고 암호화폐 ETF의 중요성을 설파함
- 반면 금융청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암호화폐 법제화를 검토했지만 비트코인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수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변동돼 리스크가 크다”고 암호화폐 ETF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
- 이에 대해 후지마키 의원은 암호화폐 ETF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암호화폐 ETF가 출시되면 가격 변동성이 억제된다”고 반박함

■ 일본 암호화폐 ‘자금결산법’ 수정 법안 가결

- 31일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암호화폐 환전 및 거래 규정 내용을 담은 ‘자금결산법’ 과 ‘금융 수단 및 거래법’ 수정 법안이 31일(한국시간) 오전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며, 해당 법안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해당 개정안은 ▲암호화폐 명칭 ‘암호자산’ 으로 통일 ▲ ‘금상법’ 규제 대상에 암호화폐 포함 ▲암호화폐 마진 거래 규제 ▲ ‘금상법’ 에 의거 ICO 토큰 규제 ▲암호화폐 콜드월렛 보관 의무화 ▲암호화폐 거래소 투기 조장 광고 금지 ▲시세 조작, 내부자 거래, 루머 유포 금지 ▲암호화폐 거래소 당국에 취급 암호화폐 사전 통지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함
- 현지 당국은 이를 통해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개념 혼란을 방지하고 레버리지 투기 거래를 규제한다는 방침임

회원사 동향

[2019. 5월]

한국블록체인협회

빗썸, 암호화폐 정보공시 제도 도입

블록체인 프로젝트 공시 플랫폼 ‘쟁글’을 개발 중인 크로스앵글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빗썸에 상장되거나 상장 예정인 프로젝트에 대한 상장적격진단 평가 보고서와 프로젝트들의 사업 현황 등 주요사항을 공시

이에 따라 정확한 정보 제공이 단타 매매 중심의 암호화폐 투자 시장을 장기 투자도 가능한 시장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고 강조

에이치닥, 캐나다 핀테크 업체와 MOU체결

에이치닥테크놀로지가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핀테크 기술업체 토다큐(TODAQ)와 전략적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양사는 블록체인 및 핀테크 분야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동 프로젝트 및 연구를 추진하며, TODA 프로토콜을 활용해 기존 에이치닥 블록체인 기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

메디블록, 서울대병원·삼성화재와 의료 마이데이터 지원사업

메디블록이 마이데이터 사업 의료분야 최종 지원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삼성화재, 서울대학교병원, 차의과학대학교, 웰트와 의료 분야 컨소시엄을 구성해 블록체인 기반 개인 중심 건강정보 교류 및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진행

이번 사업은 11월까지 진행되며, 메디블록 컨소시엄은 7개월간 사업 결과물로

- ▲블록체인을 기반 진료내역 확인 및 정보 교류 서비스
- ▲임상연구 참여
- ▲의료기록, 라이프로그 데이터 기반 건강증진 코칭 등의 서비스를 개발해 시범 운영할 예정임



BLOCKCHAIN 동향과이슈

2019.6월 제8호